비숍데일 리폼드처치 주일 오전설교 번역요약본 22/12/24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을 약속하십니다.
설교자: 마티아스 샤트 (Matthias Schat) [사무엘하 7:11b-16]
11b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12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을 인하여 저녁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13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14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15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16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찌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배우는 것 중 하나는 어떤 왕국이나 정부 또는 제국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을 왕국이 하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그의 보좌에 앉아있을 한 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설교본문 구절에서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이며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을 약속하십니다.
1, 이 약속으로서의 언약: 오늘 설교본문 7장 초반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을 것을 계획했다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계보를 이를 다윗의 집을 지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더 좋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그 점을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중 하나가 그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왕국과 왕위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약속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들은 그 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그 분을 따르도록 공식적으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언약의 약속을 강조하시며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변치 않을 사랑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분의 약속에 충실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세례와 성만찬에서 보여 주신 약속을 생각할 때 놀라운 격려가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과 그의 약속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분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2, 이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신실함은 다윗에게 한 약속의 성취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오늘 설교본문 구절의 약속을 어떤 면에서 성취하지만, 진정으로 신실한 왕이 되기에는 그는 기준에 훨씬 못 미칩니다.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된 왕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왕은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었고,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 불리 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는 사람으로 다윗의 참 후손입니다. 이렇게 그 분께서는 다윗의 왕좌의 상속자가 되었고 오늘 설교본문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성취됩니다. 누가복음 1:32-33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은 다윗의 참된 후손으로 바라던 모든 것을 충족했습니다. 그 분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 회복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설레고 기쁜 날입니다.
3, 이 약속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으니 이젠 우리가 이에 응답해야 할 것만 남겨두었습니다. 우리는 그 분을 따르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

과의 관계맺음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이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맺음을 원한다면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구유에서 나신 참되신 왕을 보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로 나아가신 분. 이것이 사무엘하 7장의 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오늘 날 우리에게 우리의 소유는 내 자신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진리는 결혼, 가족 그리고 새해 계획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참되신 왕을 올바르게 따르기 위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의 참된 왕이 오셨다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상기시키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 분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영원히 그의 백성을 다스리십니다.